

# 의식론: 의식의 언어와 사고 전개 기능

김병원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 A Theory of Consciousness: Deployment of Language and Thought

Byong Won Kim  
Division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 요 약

의도와 관심의 실현을 위하여, 언어 행동을 주도하는 '의식'이 사고와 언어를 연결할 때에 드러내는 특성과 기능 일부를 밝히기 위해, <실용 논리> 수업 시간에 녹화한 한 대학생의 토론 첫 부분 내용을 Chafe의 '억양 단위' 분석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억양의 단위는 평균 1.8초, 9.5음절로 구성되며, 언어와 사고는, 물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억양 단위로 끈어진 토막들이 의식에 의해 연결되면서 '관심점'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임을 발견하였다. 각 억양 단위 속에는 뚜렷하게 발음하는 하나 정도의 '초점'과, 그렇지 않은 '주변'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됨을 확인하고, 초점들을 서로 이으면 결국, 이어진 말 중심 내용이 드러남도 발견하였다. 한국어와 일본어 억양 단위는 주어+동사 형식을 갖추지 않은 예가 60%와 67.4%이므로, 주어+동사 모형은 언어와 사고 전개 모형의 한 예에 불과하다고 해석한다. 각 단위들의 연결 면에는 문제가 있음도 발견하였다.

### 1. 들어가는 말

이 논문에 소개하는 한 작은 연구의 목적은 언어 행동에서 의식(Consciousness)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언어와 사고의 전개를 주도하는가를 밝히는 데에 있었다.

행동의 전개는 의식에 의한 선택과 순서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컴퓨터의 자판 치기에 익숙하지 않은데, 예컨대 이어진 말속에서 자판에 '어제'를 친다고 하자. 그러면 '이응' (ㅇ)과 'ㄱ'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그 순서대로 치고, 계속해서 'ㅈ'와 'ㄱ'을 역시 의식적으로 순서대로 선택해서 친다. 이때 우리는 의식이 이 행동의 전개를 주도하고 있음을 안다. 한편,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 자판 치기에 익숙해졌을 때는 어떤가? 그렇게 되면 '어제'를 빠르게 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그 과정을 처음 배울 때처럼 일일이 의식할 수는 없게 된다. 그래서, 의식의 존재와 기능 같은 것은 실존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숙할 때의 행동에서 의식의 실존을 의식했다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의식의 기능을 거의 의식할 수 없게 되었다해도, 의식의 실존 자체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이 의식론의 출발점이다.

인간 행동을 주도하는 의식의 실존을 인정하고, 그 의식의 특성과 기능을 철학적으로[1], 심리학적으로[2], 언어학적으로[3] 밝히고, 한편 거꾸로, 그 의식의 특성과 기능 모형을 통해 인간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의식론이라고 한다.

이 논문은 의식론 속에서 특히, 언어 행동을 주도하는 의식의 특성과 기능을 Chafe[3]의 방법론에 따라 제한된 범위 안에서 밝히고, 그것을 근거로 언어와 사고 행동 일부를 설명하려 한다.

언어 행동의 의식론은 언어와 사고의 별도 존재를 전제로 한다. 위의 자판 글자 치기 예에서, 만일 컴퓨터 글자판에 '어제' 대신에 '언제'를 쳤다면, 그것이 손가락의 실수가 아닌 경우, 그렇게 치기 이전에 이미 '언제'라는 생각이 머리 속에 존재

했고, 본인의 의도와 관심의 실현을 위한 의식의 기능에 따라 당연히 '언제'를 치게 되었다고 추정하는 동시에, 혹시 '언제'라 친 것이 단순한 손가락의 실수였다고 해도 그것 역시 의식의 문제라고 본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어 행동에서도, 언어와 사고를 주도하는 의식이, 언어와 사고 사이의 표현 과정과 이해 과정을 주도한다고 본다.

이러한 의식론 연구의 하나인 이 논문은, 먼저 실제 언어 행동 자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과정을 진술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이어서, 그 결과를 근거로, 언어와 사고의 전개 과정에서 의식이 보여주는 특성과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 정리한다.

## 2. 언어의 억양 단위 분석과 결과

### 2.1. 자료의 채취와 분석

연구자는 P대학교에서 사고력 향상을 위한 읽기-토론-쓰기 중심의 <실용 논리>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르치는데, 학습 과정의 하나로, 규칙에 따라 찬성-반대의 의무 수행을 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토론(Debate)을 녹화도 하여 활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2002년 4월, "한국 대학 세계의 술 문화는 잘못되었다"는 안전에 대한 찬성-반대 토론의 녹화에서, 첫 연사의 발언 중 앞부분 18초 동안의 발언 내용을, 다음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1) 기준(억양의 단위): 말소리는, 호흡할 때에 구강을 통해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과정을 조절하여 발음된다. 따라서, 말소리는 호흡 조절과 함께, 약 1초 내지 2초 동안의 소리의 토막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되므로, 그 토막을 '억양 단위' Intonation Unit이라 한다. 이 연구에서는 Chafe[3]의 분석 기준에 따라, 이어진 말에서 억양 단위의 경계를 찾아 긴 말을 짧은 억양 토막으로 나누었다.

한 억양의 단위 끝은, 이어진 말속에서 1-2초마다 한 순간 숨을 들이쉬는 지점이다. 한 토막의 끝 억양은 대개 뚜렷하게 내려가면서 다음 새로운 억양 단위의 시작에 대한 준비를 보이는데, 말소리의 크고 작음이나 속도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용의 끊어짐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2-1) 기록과 정리: 토론자의 토론 내용을 표현 그대로 기록하여 억양의 단위대로 나누었다.

(2-2) 초점 찾기: 각 억양 단위 속의 강세로 나타

나는 '초점'(Focus) 부분이 있는가를 찾아서 표시하였다. (2-3) 주변 주요 내용: 각 억양 단위 속에서, 초점을 제외한 부분을 '주변'이라고 하고, 그 주변 속에서 초점 다음으로 중요한 표현을 찾았다. (2-4) 양의 확인: 억양 단위, 전체 음절, 초점, 주변 주요 내용 등의 수를 세었다.

## 2.2. 결과

<결과 1> 분석의 결과를 억양 단위의 수와 음절의 수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억양 단위 10개, 총 95음절

<> 전체 전개 소요 시간: 18초

<> 전체 음절 수: 95음절

<> 전체 억양 단위: 10개

<> 억양 단위 평균 시간: 1.8초

<> 억양 단위의 평균 음절: 9.5음절

<결과 2> 각 억양의 단위 안에는 대개 하나의 초점이 있고, 뚜렷하게 강세를 주지는 않았어도 내용상 중요한 부분이 주변에 있을 때도 있다. 단, 억양 단위 하나에 초점이 둘 있거나, 초점이 없는 예도 있다.

<> 억양 단위 속의 초점 수: 8 (23음절)

<> 주변의 주요 내용 수: 4 (11음절)

<> 초점이 없는 억양 단위: 2개

<실제자료> // 속의 번호는 억양 단위의 순서이고, 이탤릭체로 쓴 부분은 각 억양 단위 속의 초점, 밑줄 그은 부분은 주변 속의 주요 내용이다.

<안전> 한국 대학 세계의 술 문화는 잘못되었다.

(앞부분) "저는.. 제 생각에는 한국 대학의 술 문화가.. 잘못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우선.. 그걸 알기 위해서..

/2/ 우리 나라 대학의- 술 문화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3/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4/ 보통 보면은..

/5/ 대학의 술 문화라는 것이

/6/ 보면 사람들 인식에

/7/ 보면은.. 선배들이 뭐-

/8/ 억지로 마시게 하고,

/9/ 그리고.. 보통.. 보먼은..  
/10/ 폭음하고.. 이렇게 합니다.

### 3. 해석과 논의

위 이어진 말의 자료 /1/부터 /10/까지의 내용 중에서 초점과 주변 중요 내용들만을 뽑아서 하나의 문장이 되도록 다시 정리하면 다음 60음절의 다듬은 말이 될 수 있다.

<다듬은 말> “우선 잘못된 점을 알기 위해 대학의 술 문화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선배들이 억지로 마시게 하고 폭음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보통 인식합니다.”

이 내용이 실제 이어진 말에서는 왜 10개의 억양 단위로 나뉘어 연결되며, 어떤 기능과 특성이 있는가를 검토하자.

#### 3.1. 억양 단위의 전개

##### 3.1.1. 표현에 드러나는 의식의 기능

분석한 자료의 억양 단위 길이는 평균 1.8초였다. 영어 세계의 자료 분석 결과도 1초 내지 2초 [3]라고 정리되어 있다. 억양의 단위는 호흡에 의한 생리적 제한을 기초로 하므로, 언어의 종류에 관계없이 소요 시간 길이는 동일 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억양 단위/1-10/으로 전개한 자연 언어 행동 자료와, 그 내용을 <다듬은 말>과 서로 비교하면, 교실 토론에서 실제로 그렇게 말한 학생 자신까지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연 언어의 표현은 부분부분의 선택과 나열 순서가 거의 모두 어색하다.

10개의 억양 단위 중에서, 주어의 표현이 빠진 /1/ “그럴 알기 위해서”와 /3/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10/“폭음하고...”까지 포함하여 주어+동사의 모양(Clause)을 갖춘 것은 겨우 4개(40%) 뿐이다.

[주어]+동사 4개: /1/ /2/ /3/ /10/

단어 중심 4개: /5/ /6/ /7/ /8/

단순 접속 2개: /4/ /9/

이것은 의식이 자연 언어의 전개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인 것 같다. 자연 언어는 단순히 의미만을 표현 형식에 맞추어 전개한 것이

아니다. 토론자는, 수업 중에 주어진 안전에 대해 반대편을 포함한 학생들에게 1-2초의 호흡 리듬에 맞추어 말을 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찬성 내용을 전개하는 동시에, 청중의 기대와 반응에도 호응하는 의식의 기능이 결국 자연 언어에 드러났다고 본다. 각종 표현의 반복이나, ‘우선’ ‘먼저’ ‘보통 보먼’ 등이 그런 증거의 일부이다.

이 증거는 언어 행동의 사고 과정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고 본다. 교실 현장의 연구자나 학생들이 토론 내용 청취와 이해에 불편을 전혀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만일 다시 정리한 <다듬은 말>을 자연 상태의 말소리로 듣는다면 아마 청취에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다. Kintsch[4]와 같은 인지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라 밝혀진 청취 과정 모델에 의하면, 청취란, 의식(참고: ‘단기 기억’ (Short/Working memory)이라고도 함)에 의해 1-2초마다 한 번씩 내용을 계속 접수하는 심리 과정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비해, <다듬은 말>은 연구자가 자연 언어의 내용을 문법 형식에 맞추려는 의도와 관심점을 실현하려는 의식에 따라 전개하는 것이므로, 자연 언어의 내용 이해를 위한 청취 심리 과정에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연 언어와 <다듬은 말>의 전개 차이는 의식의 실존과 기능을 확인하게 해준다.

##### 3.1.2. 외국어 연구와의 비교

이 연구의 자료에서 발견한 언어 전개의 현상을 일본어와 영어의 경우와 비교해보자.

Chafe[5]의 연구 모형에 따라 일본어 자료를 채취하여 이어진 말을 억양 단위로 분석한 Clancy[6]는 일본어에서도 (앞서 살펴본 이 연구의 자료가 보여준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현상을 발견하고, “...한 문장 내용이 몇 개의 억양 단위로 구분되어 의사 소통되고...” 문장 문법에 맞지 않게 조각난 표현을 담은 억양 단위가 전체의 67.4%나 된다고 하였다[6:72-73].

여기서 두 가지 흥미 있는 점을 발견한다. (가) 이 연구의 자료에서는 60%가 문장 문법에 맞지 않는 형식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일본어의 유사 현상 67.4%와 매우 가깝다. (나) Clancy[6]가 일본어 데이터를 해석할 때에, 일본어가 “문장 형식을 갖추지 못한 억양 단위를 많이 보여준다”고 설명한 것은, 영어의 문장 중심 문법과 영어의 자료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영어에서는 주어+동사의 모형을 벗어나는 억양의 단위

가 40%라고 발표되어 있다[3:65-66].

여기서 우리는, 한국어/일본어의 예가 보여주듯이, 사고의 전개 단위는 반드시 문장이라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청취 심리 모델에서도, 의미 이해 과정은 주어+동사의 문장 형식을 기준이나 단위로 전개하지 않는다[4]. 만일 내용의 이해가 문장 단위로 된다면, 한국어/일본어의 자연 언어 이해에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토론 당시, 연구자와 학생들은 이 연구의 자료인 자연 언어를 말소리로 직접 들을 때에 이해의 어려움을 조금도 경험하지 않았다.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생리적 현상에 따라 억양 단위를 전개할 때에는, 그 안에 주어+동사의 모형을 갖추지 않은 예들이 나타나지만, 억양 단위들이 이어가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주어+동사의 모형이 드러나니까, 사고 전개의 단위는 문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예컨대, 억양 단위 /7-8/을 각각 보면 문장을 이루지 못하는 조각들이지만(/7/ “보면은.. 선배들이 뭐-” /8/ “억지로 마시게 하고..”), 서로를 이으면 주어+동사를 갖춘 /7+8/ “선배들이 억지로 마시게 하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 주어+동사는 내용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정리한 결과이다. 고로, 발화자의 사고 진행 과정이 주어+동사의 형식을 반드시 따른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 3.2. 초점과 주변

억양의 단위 현상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의식의 기능은 초점 현상이다. 앞서 <결과 2>에서 밝혔듯이, 이 연구에서 분석한 10개의 억양 단위 중에 8개에는 가장 뚜렷하게 발음하는 ‘초점’(Focus)이 각각 하나씩 있었다. 즉, 한 억양 단위 속에는 대개 하나의 초점이 있다. 단, 때로는 초점이 둘 있을 수도 있고(예: 억양 단위 /2/) 초점이 없는 것(예: 억양 단위 /4/ /9/)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모든 점은 영어 자료의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3].

그리고 각 억양 단위의 초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른바 ‘주변’(Periphery)이다. ‘주변’은 초점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의 자료에는 그런 주변에서, 내용의 전개로 보아 중요한 표현이 4개(‘우선,’ ‘우리 나라,’ ‘보통,’ ‘사람들’)가 나타났는데, 상황 따라서 언제나 강세가 있는 초점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들이다. 강세(초점)

여부는 자신의 의도와 관심점을 표현 실현하려는 의식의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

/1-10/에 나타난 억양 단위의 초점과 주변의 중요 내용을 연결한 것이 60음절의 <다듬은 말>이었다. 즉, 각 억양 단위의 초점과 주변 주요 내용은 사실상 이어진 말의 중심 내용이 된다. 생각을 표현하는 발화자의 입장에서는 중요 부분들을 억양 단위의 초점으로 나타내어, 앞과 뒤를 서로 연결시켜서 전체 내용을 전개한다. 이것이 표현 과정이다. 청취 쪽에서는 바로 이 중요 부분들을 연이어서 전체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

### 3.3. 관심점의 전개

이 연구에서는, 토론자의 찬성 발언 첫 부분인, “저는.. 제 생각에는 한국 대학의 술 문화가.. 잘못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부터 분석하였다. 그리고, 발화자는 3분 동안 발언을 하였는데, /10/에 끊어서, 18초의 /1-10/만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고 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한 선행 연구 [7]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토론 현장에서 발표하는 자연스러운 이어진 말의 내용 단위는 글의 ‘문단’에 비교할 수 있었다. 즉, 3분 동안 계속된 말이 몇 개의 큰 토막으로 구분되는데, 대개 ‘우선’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등으로 시작하고, 대개 하나의 중심 내용에 관계 있는 것들만을 이어서 전개하였다. 이런 현상을 ‘관심점’(Center of interest)의 전개[3]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어진 말의 내용 구성은 관심점의 전개를 큰 단위로 하고, 그런 관심점들을 서로 이어서 전체 3분의 말을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관심점 안의 내용 전개는 억양의 단위로 끈어서 이어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하나의 관심점, ‘대학 술 문화의 개념 정의’를 전개한 /1-10/을 분석 관찰의 대상으로 정하게 되었다.

관심점의 전개에 관련한 우리의 관심은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3.3.1. 억양 단위들의 연결

분석 자료 /1-10/의 각 억양 단위 시작과 끝을 다시 살펴본 결과, 다음 내용을 발견하였다.

처음 /1/의 ‘우선’과 끝 /10/의 마지막 ‘..하고.. 이렇게 합니다’는 관심점의 시작과 끝을 확인시켜 준다. 그리고 /4/ /6/ /7/ /9/에 나타난 ‘보통’ ‘보면은’ 등은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다음 예들을 발견하였다.

- /3/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 /5/ (대학의 술 문화)라는 것이
- /10/ (폭음)하고.. 이렇게 합니다.
- /6/ 보면 (사람들 인식)에

/3/의 “있는데...”는 그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관계를 밝혀주지 않고 있다. /5/의 “...라는 것이”와 그 설명이 되는 /10/의 “폭음하고.. 이렇게 합니다”는 바르게 이어지지 않는다. 또, /6/의 “사람들 인식에”도 끝말 /10/ “폭음하고.. 이렇게 합니다”와 바르게 이어지지 않는다. 끝의 /10/ 안에서는 “폭음하고”와 “이렇게 합니다”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이와 같은 연결의 문제 예는 연구자의 한 선행 연구에서도 발견되었다. 즉, 대학생 10명의 토론 발언을 문장의 연결 면에서 관찰한 결과 평균 2개의 연결어 오류를 보였다[7].

일상적인 한국어에는 능숙하다고 생각되는 대학생이 이렇게 앞-뒤의 말을 바르게 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옳겠는가?

먼저 <다듬은 말>에서 보았듯이, 관심점의 내용 자체 전개에는 문제가 없었다. 또, 실제 토론자의 이어진 말을 듣는 청중의 청취에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아마, 표현을 다듬을 때나 청취할 때, 표현이 불확실한 연결어들을 무시하면서 또는, 전체 내용 이해 입장에서 스스로 바로 잡아 보면서 의미를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보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해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발화자로서는 연결 표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 3.3.2. 다른 관심점과의 연결

이미 언급한 대로, /1/의 ‘우선’과 끝 /10/의 ‘... 이렇게 합니다’로 토론자의 관심점인 ‘대학 술 문화의 개념 정의’는 끝났다. 그 다음 관심점의 시작과 끝도 잘 나타났고, 각 관심점은 억양 단위로 이어지면서 대개 일관성 있게 이어진 말을 구성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연구자의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치 문단처럼 전개되는 관심점과 관심점 사이의 의미상의 연결에는 큰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대학생도 잘 못하는 예가 있고, 어린이들의 경우에

는 잘 못하는 예가 훨씬 더 많았다[7].

위 3.3.의 1과 2를 종합하면, 단위에 관계없이, 앞과 뒤의 내용을 의미 있게 이어주지 못한 예가 많다는 점이다. 그런데, 자료 /1-10/의 <다듬은 말>에서처럼 다듬은 말이나, 글로 쓴 것은 대개 억양 단위의 연결 오류가 거의 없고, 관심점과 관심점의 올바른 연결에서만 오류가 쉽게 발견된다[7].

## 4. 제한점과 의의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은, 의식이란 물처럼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억양 단위별로 끊어져 이어나감을 보여주는 데 필요한 근거 제시에는 무리가 없었다. 그리고, 1.8초(또는, 1-2초)의 억양 단위 개념과, 또, 초점들을 이어나가면 관심점 내용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

그러나, 억양 단위의 음절 수, 억양 단위와 단위를 연결하는 부분들, 단위 속의 주어+동사 모형의 평균 분포 현상 등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대학생들의 토론을 녹화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같은 목적으로, 일상적인 각종 말과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분석 자료의 양도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넓게 일반화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내용의 발표는 의식론의 핵심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고, 언어 행동의 실체에 접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소개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었다고 본다.

## 5. 맺는 말

의식론도 하나의 이론이고 연구 방법론이다. 따라서 절대적이기를 기대하거나 다른 이론과 연구 방법을 의식론으로 대치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다만, 적어도 인간 행동으로서의 언어 행동의 실제 파악을 위한 방법으로는 다른 어느 이론이나 방법에 비해도 의식론의 중요성은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각자 순간마다 의도와 관심점이 있고, 그것의 실현은 의식이 주도함을 경험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1] Searle, J. *Mind, Language, and Society*. N.Y.: Basic Books, 1998.
- [2] Baars, B. *In the Theater of Consciousness: The Workspace of the Min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3] Chafe, W. *Discourse, consciousness, and time: The flow and displacement of consciousness experience in speaking and writ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4] Kintsch, W. *Comprehension: A Paradigm for Cogn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5] Chafe, W. The deployment of consciousness in the production of a narrative. In Chafe, W., Ed., *The Pear Stories*, NJ: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9-50, 1980.
- [6] Clancy P. Written and Spoken Style in Japanese Narratives. In Tannen, D., Ed., *Spoken and Written Language: Exploring Orality and Literacy*. 72-73, 1982.
- [7] 김병원. “찬-반 토론 과정에 나타나는 의식 전개 모형.” *대한사고개발학회 2001 연차학술 발표 논문집*, 61-73. 2001.